

당신의 이야기를 사고 팝니다

전북청년 어울림한마당 축제 성료... 청년소통 열린회의도 함께 열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9~20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청년문화 향유의 장인 '제4회 전북청년 어울림한마당축제'를 전주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기획단, 청년스포터즈의 사전모집과 활동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전체 기획 및 운영을 진행했다.

'말, 씬, 아이디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의 정치, 청년의 시장, 청년의 문화' 세부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서로 도와 편익을 나누는 '호혜' 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4개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사전프로그램으로 시군지역 청년들과의 소통과 정을 진행해 우리 지역 청년들의 생각을 아우를 수 있게 준비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화제가 아닌 이야기 콘텐츠 거래를 통한 청년들의 공유 대안적인 삶, 사람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지난 18일 밝혔다.

첫날인 19일 오후 1시 네트워크 광장에서 기관 관계자들과 지역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의 개막을

일리는 오픈식이 개최되었다. 축하 공연으로는 우리도 청년음악가들의 개회 퍼포먼스와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의 주제강연, 청년 재즈팀 공연이 열렸다.

청년의 정치는 사전 14개 시군의 지역네트워크 매니저의 '청년잇수다' 집담회 자유발언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 정책에 대한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청년정책사용설명서 프로그램은 월별로 청년들이 인식한 정책전시 및 의견 참여, 오픈미이크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청년의 시장은 호혜마켓으로 나의 이야기와 상대방의 재능을 맞바꿀 수 있는 오픈라인 매칭쇼가 열렸다.

특히, '청년 수(秀)퍼마켓'에서는 협업기관인 대학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었다.

청년의 문화에는 청년들의 일상노하우를 소개하는 '청년평담'과 '청년 아이디어 페어', '로컬 청년잇다'와 참여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청년기획단의 자체 프로그램(10여개)과 '소셜 다이닝 식구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축제기간 이틀째인 20일에는 전라

북도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함께하는 '전북권역 청년소통 열린회의'가 개최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의 주요 관계자에게 우리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청년소통 열린회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정부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 청년 의견수렴의 장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전국 10개 권역에서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청년정책 운영방향 설명, 전라북도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의 방향성 토론과 청년정책 분야별(교육·교육·문화·주거복지) 분임토론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순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시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와 전북 청년포럼단 5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의 청년들 스스로 청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되고 그 결과가 정부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가 되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국제교류센터가 지난 18~19일 18개국 해외동포 언론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제8회 전라북도 테마답사를 가졌다.

해외동포 언론인에게 전북매력 '뽐뽐'

전북국제교류센터, 오피니언 리더 대상으로 테마 답사 실시 전주·군산·순창서 역사·문화 체험·농업 우수사례 견학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지난 18~19일(1박2일) 전주, 군산, 순창에서 18개국 해외동포 언론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제8회 전라북도 테마답사를 가졌다.

이번 테마 답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전주 한옥마을 탐방, 새만금홍보관 및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견학, 순창 장류 축제 개막식 참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견학 등 전라북도 농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해외동포 언론인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그동안 센터는 국내·외 다양한 외국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를 전북도도 초청하여 한국속의 한국 매력 전라북도의 우수한 전통·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인 팸투어(Fam Tour) '테마 답사'를 총 8회 운영했다.

그간 참여한 라오스 루앙프라방주

정부 관계자, 태국 관광협회(ATTA), 주한공관 외교관,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은 사후 만족도 조사(survey)를 통해 '전라북도 홍보의 장 마련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했다는 점에서 센터의 기획 의도가 빛났다는 평가를 했다.

이영호 센터장은 "센터에서 기획된 전북도 테마 답사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매력전북' 홍보 프로그램으로 성과가 있었다"면서, "계속적으로 세계에 전북의 역사·문화 등을 적극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지방세 체납징수전담반 66명 투입

전북도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와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9월말 기준 도세 체납액이 224억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규모 확대에 의해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징수전담반 조직인 징수팀이 없어 체납자 면담 등 상시 현장 징수활동이 어려워 2017년부터 연간 2~3회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징수팀이 없는 시도는 전북, 충북, 충남 3개 지역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은 크게 열악하며, 내년부터는 악의적 회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 감치명령제도(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등 강력한 행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체납징수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납징수전담반 활동기간에는 상습

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며, 직접 체납자를 현장 방문하여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등 예외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적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며, 직접 체납자를 현장 방문하여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등 예외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자활어울림한마당 성료... 근로 의욕 향상·공동체 의식 고취

전북도는 18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근로 의욕을 향상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2019 전북자활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활센터 관계자,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문화

공연, 명랑운동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활분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 총 25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으며, 자활 자립을 통한 탈빈곤을 이뤄내자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를 제공

해 자활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도, 14개 시군에서 자활근로 및 자산 형성 지원 등 18개 사업에 49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광역자활기업 6개소와 150개 자활근로사업단, 94개 지역자활기업이 활동 중이며, 3617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아름다운 광고문화로 전북의 품격 한층 UP

남원서 사인 아트 페스티벌 성료

전북도와 남원시, (사)전북도옥외광고협회는 올바르고 친숙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근 남원시 관현루원 예촌 일원에서 300여명의 옥외광고 관계자 및 도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사인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 열린 '사인 아트 페스티벌'은 문화가 있는 예술의 고장 남원시 예촌 간판개선사업 현장에서 관광객과 도민, 광고인의 등을 상대로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전달하는 등 간판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6회째를 맞는 '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시상·전시행사와 함께 광고 설비 및 기자재 박람회, 간판관련 체험 부스 운영과 다채로운 공연까지 어우러져 남원 예촌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으며, 특히, 남원시는 간판개선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천 만원을 지원받아 간판개선사업 거리에 활용하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간판특화거리 조성도 병행했다.

한편, 이번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은 기존간판, 창작간판, 창작모형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총 66점이 출품되었으며, 특히 창작부문에서 학생들이 창작한 가운데 '2019년 사인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 열린 '사인 아트 페스티벌'은 문화가 있는 예술의 고장 남원시 예촌 간판개선사업 현장에서 관광객과 도민, 광고인의 등을 상대로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전달하는 등 간판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6회째를 맞는 '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시상·전시행사와 함께 광고 설비 및 기자재 박람회, 간판관련 체험 부스 운영과 다채로운 공연까지 어우러져 남원 예촌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으며, 특히, 남원시는 간판개선 사업

모티브로 부식 페인트를 활용해 오래된 질감을 표현하여 90여년 전통 기업의 역사성이 잘 드러났으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뛰어난 정보 전달력에 큰 호평을 받았다.

'창작간판'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전북떡집'은 떡매의 형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년 전라북도의 전통을 표현함과 동시에 모던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과 고급스러움을 담아낸 아이디어로 돋보였다.

또한, 행사장에는 경기·광주·대구 등 전국의 간판제작 설비가 전시되어 광고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연함과 동시에 다양한 간판 기자재 전시로 참가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제과 제빵 만들기 재능기부와 함께 '나무의 간판문구 uv필름 제작'과 간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탄장민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관광객들과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군 공고 제2019-1014호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1. 개최목적: 무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2019년 11월 5일(화) 15:00 ~ 17:00
 - 나. 장 소: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전통문화회의실
3.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개요
 - 가. 사업범위: 무주군 전역
 - 나. 주요내용
 - 무주군 여건 및 쇠퇴분석
 - 무주군 도시재생 비전 및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 및 단계별 추진방안
 - 재원조달 방안, 성과관리 방안 등
4. 기타사항
 - 가.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및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에 참석을 못하는 주민 등은 2019. 11. 11.(월) 18시도착분에 한함까지 의견을 우편,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장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건설과 지역재생팀
 - FAX: 063-320-2601, E-mail: civilss@korea.kr
 - 의견서 서식: 공청회 장소 별도 비치 및 무주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건설과 지역재생팀(063-320-26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 무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